

제1장 군포시의 역사 개요

1. 고대와 중세의 군포¹⁾

1) 선사시대의 군포

최근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이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62-5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야동유적은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20여 곳의 구석기유물 출토지 가운데 전곡리 유적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발굴조사는 충북대학교 박물관탐에 의해 1988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일대는 해발 70m 내외의 야산 구릉지대로서 발굴은 야산 구릉(정상높이 해발 85.73m)의 서남쪽면 아래쪽을 중심으로 177㎡에 걸쳐 이루어졌다. 출토된 석기는 규암 자갈들로 만든 끈은 오목날 긁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긁개, 편마암 모난 돌로 만든 볼록날 긁개·세기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밀개, 편마암 모난 돌로 만든 홈날, 편마암 판자돌, 백운모·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주먹대패, 규암 자갈들로 만든 망치, 규암 판자돌로 만든 망치 등이 있다.

이 곳 문화의 성격은 석기의 구성면에서 볼품 석기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바탕돌로 거의 편마암 계통이 쓰여서 이곳에 발달된 암층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기의 기능은 긁개·밀개 등 부아조리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석기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벼워 이곳에 생활하였던 구석기인들은 큰 짐승보다는 작은 짐승의 가죽 벗기기, 조리 등 가벼운 일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석기 날의 사용 정도로 보아 약간씩 쓰인 흔적이 관찰되며, 문화층의 두께와 연관지어 보면 이곳에서 잠깐 살다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제작은 르브루아 수법이고, 전반적인 간접폐기로 쓰인 흔적이 없고, 임부리 세기개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1) 『군포시사』, 94~133쪽 참조.

군포지역내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된 것이 없고, 발굴된 고인돌은 골안마을 2기, 광정마을 5기, 문화촌 4기 등 총 11기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골안마을 소재 고인돌은 군포시에서 당성사(堂成寺)로 들어가는 골안(谷內) 마을 입구의 논에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산본2동 179번지이다. 산본천의 지류인 작은내에 인접하여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었다. 제1호 고인돌은 해발 45m인 계곡의 계단식 논에 있었다. 덮개돌은 옆에 흐르는 산본천의 지류와 같은 방향으로 장축이 남북에서 서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05cm, 폭 140cm로 길쭉한 타원형이며, 두께는 50cm 내외이고 화강암이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4m 떨어진 논두렁 밑에 위치하였다. 덮개돌은 길이 180cm, 폭 85cm, 두께 30~50cm의 규모로 부정형이며, 장축은 동서 방향이었다. 골안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광정마을 소재 고인돌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큰 줄기 능선 하단부의 계곡 삼각지에 위치한 해발 75m이고, 행정구역은 산본2동 345번지의 밑이었고,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1호 고인돌은 광정마을 고인돌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유적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길이 265cm, 폭 140cm, 두께 50~55cm이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약 40도 가량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의 동북쪽으로 40m 떨어져 위치한다. 길이 100~200cm, 폭 50~100cm 내외의 돌덩이 5개가 모여있다. 덮개돌을 이동시키고 하부층 조사한 결과 2개의 석곽이 발견되었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돌의 남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두개의 큰 돌이 마주 끼이고 있는데, 큰 것은 210×151cm, 작은 것은 148×90cm였다. 두개의 괴석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4호 고인돌은 제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5m 떨어져 있었다. 덮개돌은 화강암으로 4개로 쪼개졌으며, 주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154cm와 폭 100cm로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20도 가량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허부구조는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5호 고인돌은 제4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19m 떨어져 있다. 덮개돌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166×145cm의 타원형이며, 두께는 20~25cm의 판석형으로 남단은 돌글개 다듬고, 북쪽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문화촌 소재 고인돌은 수리산의 동쪽지맥에서 남으로 흘러내린 중간지맥의 해발 55m 높이의 기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산본동 산 1-2번지이며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1호 고인돌은 구릉 사면의 동남부에 위치하였다. 덮개돌은 편마암이고 크기는 길이 200cm, 폭 180cm, 두께 20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에서 7m 떨어져 있다. 편마암 덮개돌은 290×263cm의 크기로 거의 원형을 이루며 두께는 64cm이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돌에서 북쪽으로 5~10m 떨어져 위치한다. 4호 고인돌은 3호에서 1.5m 떨어져 있는데

하부구조는 교란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삼국시대의 군포

백제가 한강유역 일대의 여러 성읍(城邑)을 거느리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것은 3세기부터였다. 백제의 영토가 북쪽으로 예성강, 동쪽으로 춘천, 남으로 안성천 일대까지 이른 시기를 학계에서는 대체로 고이왕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포지역이 백제의 영역이 되는 시기는 늦어도 이때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군포지역은 한성 백제기의 수도가 있던 오늘날의 송파구 일대와 멀지 않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접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와 관련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396년에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정하였다. 고구려군은 관미성(關彌城)과 아차성(阿且城) 등 58개의 성과 700개의 촌을 쳐무순 뒤에 한강을 건너 백제의 수도인 한성(漢城)에 유배하였다. 백제의 아신왕이 항복하므로 백제왕이 인질로 보낸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끌고 돌아갔다. 장수왕은 부왕의 사업을 계승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다. 427년(광개토왕 15)에는 수도를 평양 동북방 대성산쪽으로 옮겨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에 큰 위협이 되었다. 신라도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위협을 느끼고 433년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장수왕은 475년 9월에 3만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도성인 한성을 침략한 뒤 성밖으로 탈출한 개로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남하하자 백제는 한성지방을 포기하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죽령, 조령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뻗치게 되었다. 이처럼 장수왕 말년에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여 중국과 자웅을 겨루게 되었다. 이때 군포지역도 자연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대체로 잉벌노성(仍伐奴城)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의 성왕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538년 사비로 천도하여 국력을 배양하면서 고구려가 점유한 한강유역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하여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551년 복벌을 감행하였다.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의 6군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거칠부 등 8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한강 상류지역인 죽령 이북, 철령 이남의 10군을 점령하였다. 이어 신라는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공격하여 한강유역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의 점유기에도 군포지역은 잉벌노성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 지역은 한산주(漢山州) 소속이었다. 한산주의 치소가 오늘날 하남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군포지역과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3) 남북국시대의 군포

삼국간의 치열한 전쟁은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및 신라의 한반도 통일 나아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만주를 차지하는 형세로 변화했다. 신라는 671년부터 676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나당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군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호암산성(虎岩山城)이 나당전쟁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호암산성은 평면형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쭉한 마름모꼴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전형적인 테피식 산성이다.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여 축성한 것으로 성벽의 총 길이는 1,250m 가량 된다. 산성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관계로 지금은 약 300m 가량의 석성(石城)만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산성의 축성 목적과 시기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문헌자료는 없지만 산성 발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유적과 산성이 위치한 입지조건과 지형을 근거로 하여 관련문헌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축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 672년(문무왕 12) 경으로 신라가 나당전쟁시 항강을 넘어 수원으로 넘어가는 옥로와 남양만으로 침입하는 해로를 효과적으로 방어·공격하기 위하여 세워진 요새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암산성과 남양만의 경유지인 오늘날의 군포지역도 호암산성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나당전쟁시 주요한 전투지역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다.

성안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개소와 연못 2개소가 확인되었다. 한우물(天井)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묻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성한 연못이 다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한우물의 조선시대 석축지는 동서 22m, 남북 12m, 깊이 1.2m의 장방형이고 그 아래에서 동서 17.8m, 남북 13.6m, 깊이 2.5m의 통일신라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지표 밑 30cm까지는 백자편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는 유물이 거의 없는 굽은 모래층이 있고 이 모래층 아래에서 교란되지 않은 흙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물의 중심연대는 7~8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에 대한 학술발굴 조사시 한우물과 제2 우물지에서 12개 기종의 1,313개체의 토기자료가 출토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 경주의 안압지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제2 우물지 최하층에서 출토된 2점의 청동제 숟갈은 길이가 25cm로서 손잡이 뒷면이 그 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는 ‘양발내력지내말(仍伐內力只內末□□□)’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시기와 규모를 달리하는 3기 이상의 건물지 겹쳐져 있는 건물터가 확인되었고 이곳에서도 6,556개체분의 기와류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사용문양

은 선조문(線條文), 어골문(漁骨文), 격자문(格子文) 등이며 여기에서도 잉대내(仍大肉)라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이 전부터 역시 그 시기를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와류(平瓦類)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한주 읍진군에 속해 있던 현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곡양현은 본시 고구려의 잉별노현으로 왕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읍진군은 오늘날의 과천지역이며 잉별노현은 시흥을 중심으로 관악구 봉천동 지역을 포함하였고 군포지역도 대체로 여기에 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 지역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잉별노현이라 하였고 신라가 점유했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곡양현으로 변경하였다.²⁾

호암산성은 이 잉별노현의 중심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672년 이후 나당전쟁이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로 전개될 때 경기도 광주의 주장성과 남양만의 해안지대를 이어 주는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얀 단군은 한강 남쪽지역으로 깊이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군포지역에서도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당군의 방어에 크게 주력한 점은 앞서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동일기 신라와 관련된 유적으로 산본동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은 군포시 산본동 산1-2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어 발굴, 조사되었다. 유적의 서쪽에는 해발 474m의 수리산이 자리잡고 이 산의 정상에서 길게 흘러내린 동편 구릉을 따라 안양시와 군포시의 시계가 그려지며 구릉의 맨끝 부분에 해발 65m의 약간 경사진 구름이 있다. 그리고 이 구릉의 정상부와 남동 경사면에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었다. 고분군은 대체로 장축이 남북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으며 구릉사면에 일정한 열을 이루어 축조되었다.

제1호분은 구릉정상부에 위치한다. 지표에 깊이 80~90cm 정도의 장방형 토광을 파고 그 안에 함석으로 네 벽을 쌓아 축조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은 평명 장방형으로 길이 242cm, 폭 95cm이고 가장 잘 남아 있는 북벽의 높이는 96cm이다. 장축은 대체로 남북방향이나 약 10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안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달린 합(盒) 1점, 꽃무늬가 새겨진 완(盃) 1점, 청동제과대고구 1점, 파관(鈔板) 7점이 있었다.

2) 읍진군은 원래 고구려의 읍목군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과주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잉별노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금주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제차파의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소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태소홀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인주이다.경원대소 또는 미추라도도 한다.京津郡, 本高句麗栗木郡, 景德王改名, 今萊州. 領縣三 穀壤縣(穀陽縣), 本高句麗仍伐奴縣, 景德王改名, 今黔州, 孔巖縣, 本高句麗 濟次巴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郡城縣, 本高句麗 賈古忽縣, 景德王改名, 今仁州[一云慶原賈古, 一作彌郡]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新羅2).

제2호분은 제1호분에서 남쪽 아래로 13m 떨어진 구릉에 있다. 석실은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졌다. 현실의 평면은 방형이며 연도는 남북 왼쪽에 약간 치우쳐 달려 있는 횡형석 석실이다. 학석으로 쌓은 석실의 정측방향은 남북에서 약 10도 서쪽으로 기울고 현실의 폭은 북북쪽이 250cm, 남북쪽이 265cm 이고 서벽과 동벽의 길이는 각각 280cm와 270cm로 거의 장방형 석실이다. 석실을 중심으로 직경 6.4m의 크기로 호석시설이 둘러있는 것으로 보아 분구의 기저면도 이와 같은 원형분으로 추정된다. 제2호분은 이미 일제시기에 도굴, 파괴되었으며 동쪽 시상대 북단에서 회청색 토기병 1개가 출토되었다. 제3호분은 구릉 동남 경사면의 중턱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을 구축한 토광은 길이 330cm와 폭 190cm의 장방형이며 상부가 하부보다 넓다. 석곽의 평면은 남북 방향으로 장축을 둔 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20cm, 폭 87cm이다.

제4호분은 제3호분에서 동편으로 10m 떨어진 구릉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제5호분은 제3호분에서 남쪽으로 8m 정도 떨어진 구릉 경사면에 장방형 토광 안에 만든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의 평면은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이며 안의 폭이 84~90cm, 길이 235cm, 높이 98cm이다. 제6호분은 구릉 남쪽 경사면의 제2호분에서 장축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1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이미 도굴되었으나 시상대에서 토기편과 청동제 과대편이 채집되었다. 제7호분은 구릉 경사면의 남단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전에 이미 파괴되어 서벽과 남북을 상실하였다. 수혈식 석곽으로 150cm 길이의 토광을 파고 그 안에 석벽을 축조하였다. 제8호분도 수혈식 석곽으로 60cm 정도 낮은 토광을 파고 조영하였다. 제9호분은 구릉의 남쪽 경사면의 중턱에 있다. 석곽은 장방형으로 폭 70cm, 길이 210cm, 높이 55cm이다.

산본동 고분군의 분포상태와 유사하게 구릉 경사면을 따라 열을 지어 조영된 고분군은 낙동강유역에 군집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중부지방에서는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 고분군의 천장구조와 유사한 것은 대구 북현동 고분군의 석곽묘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의 횡형석 석실분과 유사한 고분으로는 중부지역에서는 백제고분인 서울 방이동 제4호분이 있다. 산본동 고분군에서 출토한 과만이 장식된 것은 온전한 것이 일본 정장현 증창(中倉)에 소장되어 있다. 하여튼 산본동 고분군은 묘제상으로 보아 통일신라기의 고분군이라 하겠다.

4) 후삼국과 고려시대의 군포

군포를 포함한 한주 지역은 후삼국 초기부터 공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공예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895년 공예가 지족(猪足)·성천(猩川)의 두 군을 탈취하고 또한 한주 관내의 부약(夫若, 지금의 김포일대)·철원 등 10여 군현을 격파하고, 896년에는 왕건이 승령(僧嶺, 연천군

삭녕), 임강(臨江, 지금의 장단)의 두 고을을 쳐서 빼앗았다. 다음해에는 인물현(仁物縣, 지금의 개풍군 풍녕)이 항복하였고 공암(孔巖), 검포(黔浦), 협구(穴口) 등의 성을 쳐부수었다⁴⁾ 898년에는 다시 패서도(溘西道)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빼앗고, 마침내 송악성을 수축하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왕건으로 하여금 양주와 견주를 치도록 하였다. 900년에는 광주, 충주, 당성, 청주, 괴양 등의 고을을 공격하여 평강하도록 하였고⁵⁾ 그 후 실정을 거듭하다가 918년 태조에 의해 쫓겨나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궁예의 세력 확대과정에서 군포지역이 포함된 광주와 당성(唐城)을 수중에 넣어 한반도 세력 균형의 연쇄를 쥐고 있던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한강 유역의 요충인 국원(國原, 지금의 충주)과 그 인근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후삼국 쟁패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⁶⁾

918년 왕건이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를 건국하였다. 고려시대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부터였다. 983년(성종 2) 처음으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군포지역에는 윤진군(兪津郡)과 곡양현(穀壤縣)이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군포와 관련이 있던 과주(果州, 금주(衿州)의 기록에 보인다. 군포지역은 신라 경덕왕대에 윤진군으로 불리다가 940년(태조 23)에 모든 주군의 행정지명이 개칭될 때 과주군으로 바뀌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광주목의 관할이었다. 그리고 군포지역의 일부였던 금주는 신라 경덕왕대에 곡양이라 하였고 고려조에 오늘날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995년(성종 14)에 10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단련사를 두었다. 983년 12목을 설치와 함께 군포 지역이었던 과주는 광주목, 금주는 양주목에 각각 예속되었다. 과주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이라 불렀다. 10도제의 실시로 양주와 광주에 소속된 주현은 관내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광주목에 예속되어 있던 과주는 양광도의 관할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대에 이르러 다시 정비되었다. 1012년(현종 3) 정월에 995년(성종 14)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절도사를 혁파하고 대신 5도호(都護), 75도안부사(道安撫使)를 설치하였다. 당시 과주군은 광주목의 4개 속군 가운데 하나로 이곳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과주군은 광주목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될 수 있었고,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도 이같은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주는

3) 九年, 秋八月, 弓裔擊取猪足狹川二郡, 又破漢州管内大柵濟潤等十餘郡縣.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4) 三年丙辰, 攻取僧嶽·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三國史記』권50, 列傳10, 弓裔傳).

5) 二年 … 秋七月, 弓裔取溘西道及漢山州管内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三國史記』권12, 新羅本紀12, 孝恭王).

6) 光化元年戊午春二月 … 以我太祖爲精騎大監, 伐楊州·見州. … 三年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青州[或云青川]·魏壤等, 皆平之. (『三國史記』권50, 列傳10, 弓裔傳).

7) 趙仁成, 『태봉』, 『한국사』11-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1996.

수주(樹州, 지금의 부평)의 속현으로 이곳에 있는 지사의 지휘를 받고 금주현은 수주의 6개 속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예속은 문종대에 변하였다. 과주지역의 행정단위가 경기에 편입되면서 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1062년(문종 16)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를 부활시켜 도성에서 관할하던 11개의 속현을 이곳에 속하게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부윤 이하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할하게 하고 따로 개성현을 두어 성 밖을 관장하게 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지 만, 과주, 금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과주, 금주가 언제 경기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후 공양왕대에 이들 지역은 분종대의 옛 제도에 따라 경기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좌도는 과주군을 비롯하여 금주, 안산, 교하 등이 속하였으며 부평, 강화 등이 우도에 속하였다. 그리고 각각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를 두었다. 과주와 금주, 안산 지역은 좌도의 장관인 도관찰출척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고 그를 통하여 중앙과 연결되었다.

이후 과주에는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금주에는 명종 2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감무는 예종3년부터 여러 작은 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 안산현은 예종 3년에서 충렬왕 사이에 감무가 파견되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군으로 승격되고 이곳이 분종의 탄생지였기 때문에 지군사(知郡事)로 올리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의 유가종은 건국 초기부터 성립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금주지역에 있던 유가종 사찰은 안양사와 수리사였다. 안양사는 『동문선』에 실려있는 이승인(李崇仁)의 「금주안양사 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라는 자료에 창건의 유래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옛적에 태조가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목적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겨 사람을 보내 보니 과연 구름 밑에서 노승을 만났는데 이름이 능정(能正)이었다. 태조가 건국초에 불법이 있는 자의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능정과 말을 나누어 보니 자신의 뜻에 맞았다. 이것이 이 사찰을 건립하게 된 연유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지인 혜겸(惠謙)이 문하시중 최영(崔瑩)의 후원으로 7층탑을 증수하였다. 안양사 주지인 혜겸은 자은종의 고승인 한편 도승통 임공(林公)의 제자였다. 혜겸은 스승으로 하여금 이승인에게 글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당시 임공을 자은종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은종은 유가종을 지칭한다. 따라서 안양사는 유가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은 고려 말기에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리사는 신라 진흥왕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자세한 창건경위는 알 수 없다. 수리사는 고려 중기 유가종의 고승 관오가 주지한 적이 있던 절이다. 유가종 사찰은 인주 이씨나 안산 김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산 김씨와 밀착되고 왕실과 연결되는 수리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었다.

2. 조선시대의 군포⁸⁾

고려말까지 과주로 불려오던 군포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과천현으로 고쳤다. 이때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은 각 도의 단부(單府) 고을을 도호부, 감부(監務)를 원감으로 군과 현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나 '천(川)'자로 고쳤는데, 영주를 영산으로 금주를 금천으로 고친 것들 예로 들 수 있다.

과천의 행정구역 변화는 1414년(태종 14) 원감을 과견하던 금천과 병합하여 금과(拮果)로 하였다. 즉 금천의 '금'자와 과천의 '과'자를 합하여 금과현으로 고을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행정구역도 개편되었다. 과천과 금주를 합하여 금과로 개정한 이유는 금천은 인래(人叟), 노비, 토착민이 번성하고 과천은 비록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지만 도로 옆에 있다는 점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얼마되지 않아 본래대로 복구되었다. 그 이유는 과천을 금천과 병합하였지만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기까지 사신을 영송하는데 길이 멀고 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천과 금천이 합쳐진 후 금천을 치소로 하였기 때문에 사격집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조에서는 경기관찰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금천을 치소로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과천과 금천을 합쳐서 금천을 치소로 삼았으나 양제역과 거리가 조금 멀지만 대소 사객들은 역에서 스스로 대접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왜인을 접대하는 일은 기일 전에 미리 마련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까이 과천이 있는 후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광주는 낙생역과 거리가 60리이지만 대접하는 여러 일이 정해진 날자에 맞추지 못함이 없는데 하물며 금천과 양제역의 사이는 40리로써 왕래하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전대로 금천으로 치소로 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경기관찰사는 과천현을 치소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1460년(세조 6)에는 과천현 백성들이 상언하기를 일찍이 본현을 혁파하여 금천현에 붙였으나 본현이 금천과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옆에 있어서 사객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구와 생산물이 적어서 두 고을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대접하기가 어려우므로 치소를 과천현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과천은 금천현과 합쳐져 한 고을로 되었다가 다시 두 고을로 복구되기도 하고 한 고을로 합쳐져

8) 『군포시사』, 135~163쪽.

있었을 때에는 어느 곳을 치소로 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기관찰사와 이조의 의견이 서로 달라 치소도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반복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등한 관제에 있는 두 고을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제였다. 즉 군현의 합병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차례 군현이 병합되거나 분리되었던 금천과 과천의 경우에는 다른 군현과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과천을 금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과천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 금천을 과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금천 백성들이 원망하였으므로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복구되었음을 반영한다.

한편 군포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광주목의 북방면이었다. 『여지도서』나 읍지 등에 나타난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광주목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 가운데 의왕과 군포를 지나 안산까지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천현 남면과 광주목의 북방면이 현재의 군포시 지역을 이루었다.

한편 군포지역은 조선시대 여러 임금들이 온양의 온천에 거둥할 때 반드시 거치는 노정의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조·현종·숙종·영조·정조 등의 온천 거둥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거둥 노정은 대개 양재역·과천·광주의 사근찬·수원 등을 거치게 되었고 과천과 수원은 가고 올 때 유숙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수원의 현릉원에 거둥할 때 이용하는 도로가 초기에는 과천로를 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시흥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군포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포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교통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시흥로는 과천로에 비해 거리상 별반 차이가 없고 높낮이가 고르고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의견에 따라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화성축조에 착수한 1794년(정조 18) 4월 새로 금천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 금천로는 이후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시흥로라 불렸다. 시흥로를 이용했던 정조의 화성행차 노정을 대략 정리하면 사흥의 경계인 장생현(長生峴)을 거쳐 만안교(萬安橋)와 군포천교(軍浦川橋)를 지나 지지대고개와 장인문을 지나 화성부 행궁에 이른다.

조선의 지방군제는 세조 때에 크게 정비되었다. 진관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하나의 진관을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이었다. 당시 편제를 보면 과천은 부평도의 좌익에 속하였고, 금천현은 부평도의 중익에 속하여 현령은 중익수령으로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 불리었다.

군포지역은 세종대 이래 왕실의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연산군대에는 이 지역이 금표(禁標) 안에 포함되어 사냥시 징발된 군졸들은 짐승불이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금천지역이 사냥터로 이용되었음은 1426년(세종 8)의 기사에 처음 나오고 있다. 연산군대 군포지역에서의 사냥은 지역 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이후 1505년(연산군 12) 5월에는 과천을 금포 내에 편입하고 현은 그대로 두게 하되 집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고, 금천도 소읍이므로 금포 안에 들이도록 하고 지경에 연결해 있는 소읍도 아울러 들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토산물 가운데 특산물은 대개 공물(貢物)로 부과되었다. 조선 초기 과천은 오곡·속·소두·교맥·호매(胡麻)·상마(桑麻), 금천은 오곡과 속(粟)·소두(小豆)·녹두(菘豆)·두(豆)·교맥(蕎麥)·당서(唐黍)·지마(芝麻)·상마 등이 생산되었다. 과천의 공물은 진용(眞葍)·지초(芝草)였고 금천은 공물로 지초와 약재로 백편두(白扁豆)였다. 한편 군포지역 특산물의 하나로 금과 은이 산출되었다. 은이 산출된 곳이 정확하게 현재의 군포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인근 금천에서 채은(採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경기도내 92개의 장시 가운데 34개의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과천에 속해 있던 군포장에서 거래된 물품은 비곡·면포·마포·과물·어염·우묵·연초·철물 등이다. 군포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동법의 실시와 양란을 경과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장시개설 엄금정책이 차츰 이완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품생산의 증가와 물화유통이 활발해짐으로써 이곳의 장시도 더불어 발달해 갔다. 정조대왕의 화성 건설과 함께 군포지역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군포천 부근에 개설되어 있던 장시를 안양지방으로 옮겨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좌의정인 채계공(蔡濟恭)이 화성으로 내려가던 중 군포천 길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남자가 길옆에 모두 엎드려 연이어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40여 호의 백성들은 오로지 군포 부근에서 장시에 힘입어 자생(資生)하는 방도로 살고 있는데 이변에 조정에서 안양발소(安養發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장시를 30리 밖 안양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므로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장차 흩어지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군포와 안양 모두 장시를 개설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의 군포시 지역을 이룬 곳은 과천현의 일부와 광주목의 일부였다. 과천의 행정구역은 금천과 합병하거나 분리되는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과천현의 지방경계는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천에 이르기까지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까지 19리,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까지 25리로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되었다. 『호구총수』·『읍지』 등의 자료를 통해 과천의 방리(坊里)를 살펴보면 자료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정조 13년(1789) 편찬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7개 면에 40개 리로 편성되어 있으나 1871년(고종 9) 편찬된 『과천현읍지』에는 7개면 44개 리로 수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현재의 군포시 지역은 남면이었다. 남면의 리명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정리 : 현 군포시 금정동 지역
당 리 : 현 군포시 당동 지역
봉성리 : 현 군포시 당정동 지역
당정리 : 현 군포시 당정동 지역
장간리 :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산저리 : 현 군포시 산본동 지역
부곡리 :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그리고 광주는 23개 면 131개 리, 3개 섬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군포지역에 해당했던 지역은 북방면(北方面)이었다. 북방면은 속달리(速達里)·둔대리(屯岱里)·대야미리(大夜味里)·도마교육곡리(道馬橋柳谷里)·팔곡리(八谷里)·건건리(乾乾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지역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속달리 : 현 군포시 속달동 지역
둔대리 : 현 군포시 둔대동 지역
대야미리 : 현 군포시 대야미동 지역
도마교육곡리 : 현 군포시 도마교동 지역
팔곡리 : 현 안산시 팔곡동 지역
건건리 : 현 안산시 건건동 지역

한편 군포지역의 인구와 호수는 과천현의 남면과 광주목 북방면의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먼저 과천의 호수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 호수는 244호,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을 부담하는 남정인구(男丁人口)를 파악한 것으로 조선 초기 이 지역의 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세조 2년에 금천과 과천이 합쳐졌을 때는 호수가 632호에 달하였다.

군포지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사이에 호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인구는 1,500명 정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포시 지역이었던 남면의 인구는 『호주총수』를 기준으로 볼 때 호구수 460호, 인구는 남자 807명과 여자 1,122명으로 모두 1,929명으로서 과천현 관내 7개면 가운데 다섯 번째이었다. 한편 광주목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의 군포지역을 이루고

있던 북방면의 각리 호구 수는 317호, 인구는 남자 700명과 여자 811명으로 모두 1, 511명이었다.

3. 근현대의 군포⁹⁾

1) 근대의 군포

군포시는 대한제국 말기 행정구역상 과천군(果川郡) 남면(南面)이었다. 군포시의 경계 안에서 생활했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천 전체로는 1905년 현재 조사된 바로 호수 3, 454호, 남자 7, 936명과 여자 7, 187명 등 함께 15, 123명이었다. 그리고 전 인구에 대한 농민의 구성비는 90%나 된다. 그런데 이 중 남면 곧 지금의 군포시 지역은 거의 농업지대여서 농업종사자의 구성비는 이보다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주업이던 남면지역 주민의 존재형태는 당시 토지소유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00년에 작성된 과천군 양안에는 지금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남면 양안이 포함되어 있다. 과천군 남면 양안에 기록된 경작지는 밭 101결 77부 9속, 논 179결 47부 5속으로 진답 총결수는 281결 25부 4속이었고 거주호수는 492호였다. 현 군포시 지역이었던 과천군 남면 한 마을의 토지소유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의 소유농지 상황을 가령 1결(結) 이상의 소유농가들 부농층이라 할 때 남면 장간(章干) 마을의 부농층은 5호이다. 소농과 빈농층이 전체 거주호수의 86. 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지는 19. 8%만을 소유하고 있어 소수의 부농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면의 토지상황은 일본인들의 조사기록인 『재무회보(財務彙報)』(1908)에도 당시 과천군 전답의 약 9할 이상이 서울사람들의 소유로 토착인으로서 지주는 물론 소작농 소리조차 듣는 것이 드물고 자작경 소작농은 부자에 속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2에 불과하여 ‘실로 본군의 소작조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재무회보』의 조사 결과는 앞서 양안의 전답 길수와 차이가 있는데 남면은 밭 92결 97부 4속, 논 127결 45부 9속이다. 일본식 면적단위인 정보로 환산한 수치는 각각 밭 228. 59정보, 논 233. 63정보가 된다.

논에서는 당연히 벼를 심지만 남면지역의 밭에 파종하는 작물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75% 정도가 보리를 심고 일부 수수 등을 심는 지역도 있었다. 여름작물은 50%가 콩이었고 그밖에 면화·메밀·조·팥·담배농사를 하는 곳도 있었다. 또 각종 채소류도 생산했다. 가을 작물은 75%가 보리,

9) 『군포시사』, 165~219쪽.

나머지가 많았다.

군포와 관련있는 이 시기 의병 활동은 주로 남한산성의진(南漢山城義陣)이었다. 이천과 여주에 각기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고 1895년 1월 15일을 전후하여 봉기한 의병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서남지방 즉 광주·용인·시흥·과천·안산·남양·수원·죽산 일대에서 세력을 떨쳤다. 당시 이 지역 의병이 과천에서도 그 세력을 떨쳤다면 과천출신 의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과천에 포함되었던 군포출신 의병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참여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후기 의병 중에서 현 군포지역을 포함한 과천군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의병부대가 있었던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의병은 유생의병만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민 의병장들이 등장하고 이들 평민 의병은 유생과는 달리 명분상의 의진(義陣) 설정지역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 실제의 활동지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일본군이 과천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이 지역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은 과천지역에서 후기 의병부대의 활동상황에 관련된 조항을 일제 경무국이 편찬한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간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에서 발췌·요약하면, “경기도 과천 현병본진소 현병 4명이 5월 16일 과천 남방 약 20리(半) 지점에서 10여 명의 적과 마주치자 그 중 2명을 쓰러뜨렸다”, “폭도토벌계획에 의거 제 13사단 기병(騎兵) 제32중대는 10월 29일 과천·안양방면을 수색하겠다고 보고함” 등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당시 군포지역을 포괄하는 과천군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이악삼이란 의병장이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는 것과 앞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몇몇 의병에 대한 이름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당시 의병 병력이 막강한 무력을 가진 일본군에 대항할 정도로 무장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일본군의 조직화된 의병 섬멸작전으로 포위망이 날로 좁혀짐에 따라 의병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데서도 연유된다.

식민지하에서 지방제도도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의 체계와 규모가 재정비되었다. 또한 식민정책이 고도화되면서 일종의 회유수단으로 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은 만 35년간 지속된 일제의 식민통치기간 중 그 성격이 바뀌는 시점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현 군포지역이 과천군에서 시흥군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 ‘합방’에서부터 3·1운동까지의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였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관제(總督府官制)」를 공포했다.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總督府令)」 제111호에 의해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특히 이때에 부군관할구역(府郡管轄區域)

의 대폭적인 병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과천군 남면이었던 현 군포지역은 1914년 3월 1일부터 1979년 군포읍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시흥군 남면으로 존속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현 군포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시흥군의 것을 포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시흥군의 3·1운동에서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南面)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의 비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면과 인접지역인 수암면(水岩面)이나 의왕면(義旺面), 서이면(西二面)에서 일어난 운동을 생각해 볼 때 남면 사람들도 이를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20개 군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178개의 청년운동단체가 있었다. 이 중 현 군포지역에서 창립된 군포구락부 창립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1926년 6월 7일 기사에서는 “1926년 5월 30일 시흥군 남면 군포강에서는 유지청년 제씨의 발기로 군포구락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와 진행방침을 결의하였다.” 라고 하여 부장·운동부위원·문예부위원·회계·서기 등 임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렸다. 이 군포구락부의 활동 역시 당시 경기지방의 다른 청년단체들의 활동상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경기지방에 있었던 청년단체들은 대체로 야회이나 강연회 활동을 하였다. 청년간의 지식계별과 일반민중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활동 중에서 토론회와 웅변대회도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단체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육·건강 문제를 환기시키기도 하였고 지역의 풍속개량이나 문화선전을 목적으로 연예 및 오락활동을 펴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귀향학생 문자보급운동’과 동아일보 중심의 ‘브나로드운동’이 그것이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참가한 브나로드운동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현 군포지역이 속한 당시 시흥군의 브나로드운동은 문맹퇴치에 역점이 모아졌다. 1932년 8월 10일 시흥군 군포보통공립학교(軍浦普通公立學校)에서 실시한 강습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이들 강습생은 가정방문을 통해 모집했는데, 40세 이상의 장년층이 많았다. 이들 강습생들을 청년부, 소년부, 부인부, 어린이 A·B부 등 5반으로 나누어 연필과 공책을 무료로 공급하면서 강습했다. 강습이 끝난 뒤에는 이들 강습생으로 하여금 연극을 시켜 주민위안찬지도 벌였다. 1932년 8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경부선 군포역 앞에서 활동하는 동아일보 제2회 브나로드의 책임대원들은 남면과 군포공립보통학교 직원들의 후원을 얻어 남면 일대에 문맹퇴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모집된 학생이 2백 5십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30세 된 농촌부녀자들과 또는 들에서 일을 하다 지게와 낫을 가진 채 상하 종소리할 들고 오는 30세 청년들도 있다. 불과 10여 일에 한글을 깨친 사람이 45명이나 된다. 지난 25일 밤에는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연극을 개최하고 브나로드 취지를 설명한 후 배워야 한다는 연극 외에 몇 가지 비극을 출연하여 1천 여명 관중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시흥군 남면 당리(堂里)에서 1932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강습에는 처음에 249명(남자 177명, 여자 72명)이 참석하였으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229명(남자 166명, 여자 63명)이었다. 이들 중 한글을 깨우친 사람은 155명(남자 96명, 여자 59명)이었고 숫자를 해독한 사람은 93명(남자 72명, 여자 21명)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흥군에서도 농촌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특히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에서 문맹퇴치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계몽운동도 일제 당국의 금지명령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현 군포지역이었던 시흥군 남면 당정리(堂井里)에서는 금주단연(禁酒斷煙)운동도 일어났다. 이 지방 유지인 양재철헌(梁在愼)의 발기로 금주단연동맹회(禁酒斷煙同盟會)를 조직했다. 임원으로는 회장 양재철헌(梁在愼), 총무 양재천(梁在贊), 회계 양재성(梁在星), 서기 김기홍(金基洪)이다. 범칙자에게는 벌금 1원씩을 걷었고, 교육 및 자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매일 1인당 연초대금으로 30전씩 저금하는 회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 이를 보면 현 군포지역에서도 금주단연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대의 군포, 군포시의 발전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전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해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시흥군은 수도 서울에 접경하고 있어서 서울 방어를 위한 공방전이 있었던 지역이며 당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관문격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전 초나 1·4후퇴 때에도 꼭 이곳이 먼저 밀리고 수복하고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피해가 더 많다.

개전 당시에는 시흥군은 큰 전무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1·4후퇴와 수복작전에는 수리산 일대의 격전 등으로 인명·주택·가옥·관공서·교육기관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흥군의 인명피해(사망·납치·행방불명·부상)는 의외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후의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치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남자 646명, 여자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20명은 그들의 주소와 직업연령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초기의 전투, 9·28수복, 1·4후퇴, 서울 재탈환 전투 등 밀고 밀리는 전쟁은 모두 이곳을 지나쳤다. 그러므로 시흥은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법률 제98호로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지방제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 시흥군은 1읍 7면 71리인데, 이 중에서 남면에는 당리·당정리·부곡리·산본리·금정리가 있었다.

시흥군 남면인 군포지역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하여 군포읍(軍浦邑)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음해인 1980년 1월에는 행정리 20개 리로 개편되었다. 1985년에 24개 리로 늘어났고 1987년에 다시 32개 리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34개 리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현재 군포읍은 20.69㎢의 면적에 법정리 5개, 행정리 34개, 428개의 국민반으로 편성되었다. 가구수로 볼 때 전체가구(23,303) 중 농가는 1.7%(403)에 지나지 않으며 비농가가 98.3%(22,900)에 달하는 등 군전체(8:92)에 비하여 현저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다.

1989년 1월 군포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법률 제4050호(1988.12.31)에 의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된 군포시의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 밑에 2담당관(총무·개발), 2실(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14과(총무과·새마을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사회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산업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 1소(보건소), 6동(군포 1동·군포 2동·당정동·산본 1동·산본 2동·금정동)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공무원 수는 355명이었다. 1995년 8월 현재에는 시장, 부시장 밑에 2국, 2직속, 3사업소, 17과, 의회사무과, 77개 그리고 12동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군포가 시로 승격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분배개선 및 복지요구 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사회안정을 기하고 경제의 정상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은 1,800여만 평으로 계획이 완료된 1995년에는 분당 9만 7,500호, 일산 6만 9,000호, 중동·평촌·산본에 각각 4만 2,500호씩 총 29만 4,000호의 신규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100만이 넘는 서울시의 인구가 유입되어 살게 되었다.

2003년 11월말 현재 군포시 각 동별, 남녀 인구는 아래와 같다.¹⁰⁾

10) 군포서청 홈페이지(<http://www.gunpo21.net>).

동별	세대수	인구수			전월말 인구수	인구증감 (전월대비)	외국인수
		계	남	여			
계	93, 393	273, 932	137, 406	136, 526	273, 540	392	2, 070
군포 1동	10, 890	28, 601	14, 995	13, 606	28, 649	-48	1267
군포 2동	11, 218	34, 879	17, 564	17, 315	34, 801	78	9
산본 1동	9, 329	23, 721	11, 783	11, 938	23, 722	-1	426
산본 2동	8, 823	27, 576	13, 691	13, 885	27, 521	55	18
금정동	8, 003	21, 484	11, 064	10, 420	21, 388	96	280
재궁동	9, 036	26, 110	12, 959	13, 151	26, 042	68	5
오금동	9, 146	28, 539	14, 327	14, 212	28, 567	-28	6
수리동	7, 685	23, 026	11, 396	11, 630	23, 047	-21	4
중내동	7, 430	24, 742	12, 280	12, 462	24, 666	76	12
광정동	10, 039	30, 074	14, 689	15, 385	29, 859	115	3
대야동	1, 794	5, 180	2, 658	2, 522	5, 178	2	40